

나주시, 전력기자재 시험인증 인프라 고도화

시험부터 인증까지 '원스톱'...에너지 산업 기반 강화 전기설비시험연구원-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협력

나주시가 전력기자재 시험인증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기업 기능을 강화하며 에너지 산업 거점도시로의 도약에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혁신산업단지 내 한국전기설비시험연구원을 중심으로

구축한 전력기자재 시험·인증 인프라가 운영 고도화 단계에 진입했다.
한국전기설비시험연구원은 산업통상부 공모사업을 통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약 200억원을 투입해 조성된 전력기기 신뢰성 시험센터로 2022년

중공 이후 시험·평가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그동안 한국전기연구원과 협력해 시험 인증 체계를 운영해 온 데 이어 올해부터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협력을 확대해 전자기적합성(EMC), 복합가속 열화, 고전압 시험 등 전문화된 시험·인증 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협력은 기존 시험 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이고 운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나주시가 선제적으로 구축한 기반

시설이 실질적인 산업 성과로 이어지는 전 환경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원은 10m 전자기적합성(EMC) 챔버, 800kW임펄스 시험장비, 복합가속열화 시험장비 등 총 19종의 핵심 설비를 갖추고 있어 전력기자재의 전기적 특성 평가부터 환경 신뢰성, 전자기 시험까지 종합적인 시험이 가능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협력을 통해 지역 전력기자재 기업들은 국내 공인 시험뿐만 아니라 해외 인

증까지 연계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특히 시험과 인증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어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경우엔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전력기자재 산업이 글로벌 수요 증가로 인해 시험과 인증 수요 또한 증가하는 상황에 나주시는 이번 협력을 통해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와 신규 기업 유치에 도 공적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나주시는 시험인증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업 지원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에너지 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기업이 제갈할 수 있는 시험·인증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에너지 산업 거점도시로의 도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벚꽃로드 129km' 구례300리 벚꽃축제 활짝

28~30일 서시천체육공원 일원...인문학 강의·명패리기 등

구례군이 전국 최장 129km 벚꽃길을 앞세운 '구례300리 벚꽃축제'를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서시천체육공원과 문척면 행복센터 일원에서 개최한다.
군은 구례 벚꽃길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지역 봄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구례300리 벚꽃축제를 열고 있다. 올해는 공연과 체험, 참여형 프로그램을 늘려 한층 풍성한 내용으로 관람객을 맞는다.
서시천체육공원에서는 아름다운 서시천 벚꽃을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름 그림 찾기", '스텝프 투어'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28~29일 펼쳐진다.
28일 저녁에는 황기암, 나비 등의 개막식 공연과 퍼포먼스가 진행돼 축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예정이다.
심용환 박사가 진행하는 '구례 역사 인문학 강의'가 열리고, 벚꽃을 바라보며 여유를 즐기는 '명패리기' 행사도 진행된다. 단순 관람형 축제를 넘어 구례의 역사와 정서를 함께 체험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 폭을 넓힌 셈이다.
군은 축제의 추억을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벚꽃 네 컷 부스'를 운영하고, '벚꽃 사진 콘테스트'도 함께 진행한다.
문척면 일원에서는 진수농약, 관광객 참여 레크레이션, 벚꽃 노래자랑, 지역 가수 공연이 이어지고, 서시천 꽃강에서는 벚꽃 풍경과 어울리는 버스킹 공연도 열려 봄 정취를 더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구례 300리 벚꽃축제는 자연·사람·지역경제가 함께 살아나는 축제"라며 "앞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봄 관광 콘텐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례=김귀진 기자 ikjin@gwangnam.co.kr

함평읍 중앙길 도시계획도로 전면개통

교통환경 개선·중심상권 활성화 기대

함평군이 읍내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중앙길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를 마무리하고, 27일부터 전 구간을 전면 개통한다.
이번 사업은 농협 함평군지부부터 국도 정보공사 구간까지 이어지는 중앙길 620m를 대상으로 추진됐으며, 기존 협소한 도로 구조로 인한 상습적인 차량 정체와 주차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도로 폭을 기존 7m에서 18m로 확장하고, 일방통행 체계를 양복 4차선으로 전환하는 등 도로 기능을 대폭 개선했다.
또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양측 보행로를 신설하고,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한 회전교차로 3개소를 설치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도로 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
특히 24일에 통신선 지중화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한전에서 전주 철거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로 기

능과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나비축제를 찾는 관광객에게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행로에는 콜라프로그 시스템을 도입해 여름철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주요 교차로에는 함평군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해 지역 특색을 반영한 경관 조성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중앙길 일대는 함평군청, 읍사무소, 경찰서, 어울림센터 등이 위치하고 있어 향후 행정·생활 중심지로서의 기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중앙길 전면 개통을 통해 교통환경 개선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개통 이후에도 도로 중앙에 설치된 전주로 인해 통행에 불편이 있었음에도 적극 협조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gwangnam.co.kr

장성, '스마트 양방향 마을방송 시스템' 눈에 띄네

가정 내 소형 스피커 활용...응급상황 대응 강화

장성군이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을 통해 농촌과 산간지역 주민들의 재난 대응 능력을 높이고 있다.
26일 군에 따르면 가정 내 마을방송은 옥외 스피커를 통해 전달돼 넓은 지역에서 음성 전달이 불명확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군은 지난 2019년부터 가정 내 소형 스피커를 활용하는 양방향 방송 시스템을 도입해 방송 전달력을 개선하고 있다.

'스마트 양방향 마을방송'은 집 안에서 방송을 들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덕분에 자리를 비운 사이 방송된 내용도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
편의성도 높다. 기존 마을방송은 장비가 갖춰진 마을회관까지 이장이 찾아가 방송을 해야 했지만, '스마트 양방향 마을방송'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언제든 방송할 수 있다.
가장 큰 장점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



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스피커 상단의 비상 버튼을 누르면 소방서, 보호자 등 미리 설정해 둔 연락처로 위급상황을 즉시 알려준다.

이 같은 기능은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 보호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
군은 현재까지 향동면과 북일면, 북하면 등에 총 4372대를 설치했으며, 올해 추가로 456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군은 주민 반응이 긍정적인 만큼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시스템 도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총총한 안전망 구축을 통해 지역 주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이항범 기자 inh6699@gwangnam.co.kr

"영농부산물 태우지 말고 파쇄하세요"

해남, 내달까지 지원 서비스 운영

해남군은 봄철 영농기를 앞두고 농경지 내 방치된 영농부산물을 파쇄해 주는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서비스'를 집중 실시한다.
사업은 농가에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고추대, 깻대, 과수 가지 등 영농부산물을 농업기술센터 파쇄지원단이 농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파쇄해 주는 서비스다. 특히 자가 처리가 힘든 고령농과 여성농업인 등 취약 계층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몫을 하고 있다.
그동안 농촌 지역에서 영농부산물 처리는 주로 소각 처리해 오면서 대형 산불의 주요 원인이자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지적되어 왔다.
해남군농업기술센터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가 현장을 직접 찾는 방식을 도입, 불발 소각을 원천 차단하고 안전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 효율적인 운영과 산불 예방을 위해 마을별 '공동 파쇄의 날'을 지정해 마을 단위로 파쇄를 신청할 경우 임대사업소에서 파쇄기 무상 임대도 지원한다.
파쇄된 부산물은 재활용돼 토양 비옥도를 높이는 자원으로 환원돼 친환경 농업 환경을 구축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직접 찾아가는 파쇄 서비스는 농민들의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동시에 소중한 산림 자원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농업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은 4월까지 집중 운영되며,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나 마을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팀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여수시는 최근 관계기관 간 협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산불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사진제공=여수시

여수, 재난안전통신망 협력 체계 강화

소방·경찰 등과 안전한 도시 조성 총력

여수시는 최근 관계기관 간 협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산불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형 산불 재난에 대한 대

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재난 발생 시 기관별로 상이한 무전망 사용으로 발생했던 소통의 한계를 보완하고,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통해 여수시의 소방, 경찰, 군부대 등 관

계기관이 하나의 통신망으로 연결되는 상호 통신체계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에는 여수시를 비롯해 여주소방, 여수경찰, 제95보병여단 1대대 등 총 9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들은 산불 발생 초기 상황 전파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주민 대피, 복구 전망 사용으로 발생했던 소통의 한계를 보완하고,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통해 여수시의 소방, 경찰, 군부대 등 관

시는 다양한 재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산불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재난이다"며 "이번 훈련으로 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영암, 학교로 찾아가는 상담프로그램 운영

영암군은 청소년 위기 예방을 위해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4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영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학교와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위기 청소년 예방 집단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전문 강사가 현장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상담과 예방교육을 함께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5개 영역 17개 주제로 구성돼 갈등 해결, 정서 관리, 심리검사, 부모 교육 등 상담과 함께 자살, 학교폭력, 미

디어 괴외존, 성폭력, 도박 예방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군은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조기 개입을 강화해 위기 청소년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와 청소년기관은 오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신청을 통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김형수 영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위기 상황에 놓이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